

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8.9)

- ☐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☐ 조금 전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
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1만 1천명 증가*했습니다.
* 취업자수 증가(전년비, 만명): ('21.3)31.4...('22.3)83.1...('23.3)46.9 (4)35.4 (5)35.1 (6)33.3 (7)21.1
 - 기상악화,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, 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,
 - 고용률은 63.2%로 7월 기준 역대 최고,
실업률은 2.7%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*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* 고용률은 월별통계 작성(827) 이후 7월 기준 최고 실업률은 기준 변경(99.6) 이후 7월 기준 최저
- ☐ 또한, 어제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
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불 흑자를 기록하여
상반기에 총 24억불 흑자를 실현하고,
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,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
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
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.
- ☐ 이에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
지역·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,
신속 통관, 세관 허가·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
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[①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]

- ☐ 먼저,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,
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
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
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.

❶ 우선,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.

-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, 수선, 포장,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,
- 다수 기업이 시설·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,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.

❷ 또한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습니다.

* 보세공장 활용 수출비중('22): 반도체 93%, 조선 92%, 바이오 91%, 디스플레이 88%

-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,
-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
-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·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.

❸ 아울러,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,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고,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[❷ 지능형 홈 구축·확산 방안]

□ 다음은 지능형 홈 구축·확산 방안입니다.

□ 정부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
❶ 먼저, 글로벌 표준이 매터*(Matter)로 통일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가전·건설·AI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,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* (기존) 주요 스마트기기 제조사, 통신사 등에서 각각 플랫폼을 개발하여 호환성에 한계
→ (매터) 타 플랫폼을 활용한 기기도 제어가 가능하고 요구성능이 낮아 높은 선호

- 지능형 홈을 마을, 도시 단위 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돌봄, 에너지 수요 관리, 방법·방재 등 분야에서 개인맞춤형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,
-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지능형 홈을 기획·설치해주는 ‘스마트 인테리어’ 등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

② 또한,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(Wifi 7)을 2024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,

- 월패드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안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③ 아울러,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표준 인증 획득과 스마트 기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,

-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아마존 등 글로벌 지능형 홈 플랫폼기업 간 협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[③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]

☐ 다음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입니다.

☐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*하고 있으나,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, 의료비 등 양육부담도 큰 상황입니다.

* 반려동물(개, 고양이)/양육가구 수(추정) : ('12) 556만마리/364만 가구 → ('22) 799/602

☐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·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,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

❶ 우선, ①펫푸드, ②펫서비스, ③펫테크, ④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분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,
-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한편,
-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하여 사업화 자금, 맞춤형 컨설팅,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.

❷ 특히,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이염,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하겠습니다.

- 또한,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 100여개를 표준화하고,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,
-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의 청구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❸ 아울러,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,

-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·농식품부 장관님, 관세청장님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

(과기정통부·농식품부 장관, 관세청장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